

남매 피아노 듀오 '환상 무대'

고예린·고우석씨 호남예술제 출신
독일서 유학 후 세계 무대에서 활약
11일 금호아트홀서 듀오 리사이틀
28일 서울 금호아트홀 연세서 공연



피아니스트 고예린(위)씨와 고우석 씨.

각자의 무드로 선보이기 위해 고예린이 슈만을, 고우석이 바흐를 선보인다.

2부에서는 안톤 아렌스키의 '두 대를 위한 피아노 소품 실루엣'을, '라흐마니노프 모음곡 2번'을 합주로 선보인다.

광주에서 나고 자란 두 사람은 6살 터울 남매로 초등학교 때 호남예술제에서 2등상을 수상하는 등 일찍이 피아노에 두각을 보였다. 동생이 10살이 되던 해 독일로 함께 유학을 떠나게 됐다. 오랜 시간 함께 음악 해 온 남매는 이번 연주회를 출발선으로 듀오를 결성해 한국과 독일 등을 오가며 활발한 듀오 연주회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서로가 '달라도 너무 다른' 남매라 일컫는 둘은 피아노라는 같은 악기를 연주하면서도 많은 부분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이들은 각자가 가진 성격도, 좋아하는 작곡가도, 선호하는 음악풍도 모두 다르다.

절제되면서 화려한 음악, 후기낭만 당시의 음악과 러시아 유명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세르게이 호마니노프를 좋아하는 누나야 달리 동생은 은조기낭만 음악과 독일 출신의 로베르트 알렉산더 슈만을 선호한다. 이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듀오 리사이틀을 꾸리게 된 것은 '다름이 나타내는 시너지'를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고예린씨는 "오랜 시간 같이 음악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과 듀오를 결성하지 않았던 것은 서로를 잘 알기 때문에 되려 방해가 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에서였다"며 "하지만 좋아하는 작곡가가 다르고 선호하는 음악의 방향이 다르듯 관객들에게 다양한 해석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 결정했다"고 말했다. 티켓 가격 2만원, 인터파크 예매 문의 02-515-5123.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문화 경계 허무는 '사랑의 하모니'

다문화 M오케스트라, 북구문화센터서 13일 정기연주회



(사)다문화 M오케스트라는 13일 오후 4시 광주 북구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제11회 정기연주회 '사랑의 하모니' 공연을 연다.

이번 공연의 총기획과 지휘는 김유정 M오케스트라 예술감독이 맡는다. 연주에는 M오케스트라가 참여한다.

특히 M오케스트라 악장 와베미나(전남예술고 2)가 바이올린 솔로로 참여하며 시카장에 피아니스트 임은정이 함께한다.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 단원들은 2010년부터 다문화음악학교를 개설해 13년째 매주 무료 교육을 통해 M오케스트라를 육성해왔다. 올해 5

월 시작된 2022년도 교육과정은 광주시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각 파트별 악기교육과 합주 방식으로 진행해왔다.

이번 연주곡 프로그램에서는 브람스의 '헝가리 안댄스 제1번', 이바노비치의 '다뉴브의 잔물결',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천둥과 번개 폴카',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열정'과 쇼팽의 '즉흥환상곡', 뷔에탕의 '바이올린 협주곡 제4번', 위락의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카프리올 모음곡', 다성의 '상제리제', 영화 타이타닉 OST 모음곡 등을 선보인다. 전석초대. 문의 010-8537-8844.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 신창동 유적 연구 30년 성과와 의미

광주 박물관, 18일 학술대회

지난 1992년 시작한 국립광주박물관의 광주 신창동 유적 조사가 30년을 맞았다. 광주 박물관은 이를 기념하기 위한 학술대회를 마련했다.

오는 18일 박물관 교육관 1층 대강당에서 '광주 신창동 마을, 서른 번째 가을의 풍경'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그동안의 성과와 의미 등을 다각도로 조명하는 자리다.

오전 발표에는 조현중 전 광주박물관장이 '신창동 유적 발굴 30년, 회고와 성과'를 주제를 발표한다. 이어 김민구(전남대 문화인류고고학과)의 '신창동 유적 시기의 한반도 남부 농경문화'를 발표하며 토론에는 김재홍(건국대 한국역사학과)가 참여한다.

오후 발표는 이영철(대한문화재연구원)이 '신

창동 유적을 중심으로 본 영산강 상류역의 경관 여정'을 발표하며 이종철(전북대박물관)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어 정인성(영남대 문화인류학과)의 '신창동 유적 출토 외래계 유물의 새로운 이해'가 진행되며 이동관(국립중앙박물관)이 토론자로 나선다.

신창동 유적의 복원을 위한 주제 발표도 마련돼 있다.

박지훈(공주대 지리교육과)은 '신창동 유적의 고환경 복원을 위한 연구주제 및 연구방법 제안'을 발표하며 김정운(한국사회과학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마지막으로 홍종하(경희대 한국고대사고고학연구소)는 '신창동 유적에서 출토된 동물뼈 안정성동위원소 및 DNA 분석'에 대해 발표를 하고 김현희(광주박물관)이 토론을 펼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가곡의 날' 전라도를 노래하다



'사랑의하모' 공연 모습

'작고 귀한 생명의 소리 깃발에 가득하고 만산을 뚫는 어부의 뗏노래 흥겨운 바다, 정겨운 순천만 가고픈 그 바다...'

가곡 102주년을 맞이한 올해, 가곡의 날을 맞이해 전라도 가곡을 노래하는 무대가 마련됐다.

'제154회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가 11일 오후 7시 광주 북구 청소년수련관 상상마루 공연장에서 '가곡의 날에 전라도를 노래하다'를 주제로 펼쳐진다.

무대에는 테너 김대연, 김종석, 박상휘, 박선용,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

11일 북구 청소년 수련관

손금옥, 황선제와 소프라노 고재경,김영미, 나인희, 박화자,서예숙, 서옥주, 심우호,이현임, 정난임, 메조 소프라노 조정옥과 바리톤 고광덕과 윤길, 이길호, 베이스 기세관이 함께한다. 중창에는 사랑의 하모가 참여한다.

이날 선보여지는 가곡 21곡은 무등산을 비롯해 섬진강과 순천만, 소쇄원, 내소사 등 전라도 풍경을 노래한다.

무대에는 한국민요인 '거문도 뱃노래'와 '압해도', '아름다운 섬진강', '그리운 순천만', '소쇄원에서' 등 전라도를 노래하는 가곡을 올린다. 또 '무등산에 올라', '무등에 살리라', '무등산야' 등 광주의 무등산을 노래하는 무대도 펼친다. 이어 서예숙 시인이 박달목의 '그 어느 지날 손이'를 낭송하며 무대의 대미를 장식한다.

12월에 열리는 155회 공연은 노들담 형제의 집 후원을 위한 송년 자선음악회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석 초대. 문의 010-2694-4592.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김대건 신부 영화, 바티칸 교황청서 시사회

출연진, 30일 프란치스코 교황 만남

한국인 첫 사제 김대건 신부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탄생'이 국내 개봉을 앞두고 바티칸 교황청에서 시사회를 연다고 8일 제작사 민영화사가 밝혔다.

교황청 시사회는 현지 시각으로 16일 오후 5시 30분 바티칸 뉴스시도스에서 열린다.

작품 연출을 맡은 박홍식 감독과 김대건 신부 역의 배우 윤시윤, 윤경호, 이문식, 신정근, 김광규 등 출연 배우들은 시사회를 위해 현지로 출국한다.

이들은 시사회 당일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인사하고, 유홍식 추기경 등 교황청 관계자, 추기호 주교황청 대사, 현지 교민들과 '탄생'을 함께 관람한 뒤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탄생'은 한국인 첫 신부이자 조선 근대의 길을 열었던 청년 김대건의 여정을 그렸다. 마카오 유학과 귀국, 선교, 안타까운 순교까지 성인의 발걸음을 스크린에 옮겼다. 국내에서는 이달 30일 관객을 만난다.

/연합뉴스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